

# 인지위덕(忍之爲德). 상이(相異)한 뷰우(view)

조이남 삼성SDS(주)/고문

**귀** 한 집에 아들이 하나 태어나 애지중지 부모님의 사랑을 흠뻑 받아가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지나가던 탁발스님이 이택 아들의 노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다가 이택의 부모를 뵈고 가겠다고 두드리던 목탁소리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상스럽게 생각한 주인집 청지기가 주인집 마님께 말씀을 드려 안채로 스님을 모셔 왔습니다. 스님께서는 “인지위덕”이라는 네 글자를 써주시면서 이택에 아들이 매일 세 번씩 큰소리로 외우도록 하면 큰 고비를 잘 넘길수 있다는 부탁의 말씀을 남기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이택의 아들은 성인이 되어 장가를 가게 되고 어여쁜 아내를 맞이하여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택의 아들이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와 아내의 방에 들어가려고 뜰 위에 올라와 보니 아내의 신발과 낫 설은 남자의 고무신이 나란히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아들은 요놈의 아내와 낫모르는 남자를 당장에 죽여 버려

야겠다고 부엌에 들어가 식칼을 들고 식식거리며 나왔습니다. 무디어진 식칼에 날을 세워서 단칼에 죽여 버려야지라고 생각하며 솥들에 칼을 갈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난 후 아들의 머릿속에는 “인지위덕”이라는 큰소리가 메아리쳐왔습니다. 참으면 덕이 온다. 몸서리가 쳐지며 긴장이 약간 풀리자 대플 위에 올라서서 큰기침으로 헛기침을 몇 번하고 나니 방 안에서 아내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야, 형부가 오셨나 보다”어서 일어나거라. 승려로 출가한 아내의 동생, 처제가 와 있었습니다. 아들의 온몸엔 식은땀이 흠뻑 젖었고 다시 한번 “인지위덕”이란 네 글자 소리가 메아리쳐 왔습니다. 잘못했으면 살인자가 될 뻔한 옛 고사의 한 마당입니다.

본인은 K회사에 30여년 근무했습니다. 본인이 근무했던 회사에는 매년 상급기관으로부터 정기 감사가 나왔습니다. 90년도 초로 기억됩니다. 삼성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역삼동으로 이전하면서 컴퓨터실도 옮겨야만 했습니다. 컴퓨터실에는 은행의 컴퓨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은행간 자금을 이체하는 중계시스템이 있었고, 잠시라도 중단되면 상거래는 물론 은행간 자금거래가 중단이 되어 우리나라 전역에 경제의 흐름이 마비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컴퓨터시스템을 중단시키지 않고 순조롭게 이전해야 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컴퓨터실의 관리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방법으로 시스템을 이전하여할 성공적인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 할 때에는 한 별의 컴퓨터 시

시스템을 이전할 장소에 미리 설치해 놓고 은행으로부터 중계시스템으로 들어오는 데이터 전송회선을 현재 운영중인 컴퓨터와 새로 설치한 컴퓨터실 양쪽으로 연결하고, 중간에 스위치용 브리지를 설치하여 어느 한쪽 방향으로 데이터가 전송되도록 하면 기계 적인 부분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삼성동 컴퓨터실에 전송이 되어오는 데이터를 브리지에서 새로 설치한 컴퓨터로 흘려보낸 후 테스트를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삼성동 쪽으로 가는 데이터 회선을 절단시키면 작업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센터 이전이 완료되고 나면 종전에 사용하였던 컴퓨터를 옮겨다 놓은 후 컴퓨터를 가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전한 직후에 종전 사용하던 컴퓨터의 유휴시간이 많이 발생되어 자산관리 측면에서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 감사자의 의견이었습니다. 업무를 중단 없이 하려다보니 신규정비가 도입되었고, 센터 이전 후에는 종전 사용하던 장비가 일정기간 유휴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업무량이 증가되어 유휴장비가 없어지고 오히려 추가장비를 도입해야만 했습니다. 감사기간 시점에서 관리자와 감사자의 입장차이가 발생하여 어쩔 수 없이 의견 대립이 되었고 피 감사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컴퓨터는 성공적으로 새로운 센터로 이전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감사자의 뷰우 차이로 유휴 장비가 발생하였다고 지적되었던 것입니다.

컴퓨터실 이전으로 유휴장비가 생기고 회사에는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 결과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감사자와

피 감사자 사이의 상이한 뷰우 차이로 이러한 기록을 남기게 되었고 피 감사자의 입장에서 세월이 지난 후에도 그때를 돌이켜보면 씩씩한 기분이 느껴지는 것은 휴먼웨어의 특징 때문일까요? “인지위덕, 상이한 뷰우“ 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